

철학사

56 독일 관념론

(휘튼 대학 아서 홈즈 박사)

이제 우리는 독일 관념론에 주목하고, 앞서 교차하는 두 갈래의 선으로 나타낸 근대 사상의 전체 구조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로 대표되는 대륙 합리주의 전통이 있고, 칸트를 거쳐 독일 관념론 전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둘의 연결고리가 궁금하시다면, 바로 자아에 대한 강조에 있습니다.

합리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선형적 지식, 즉 자아의 내적 지적 자원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집니다. 자아의 내적 합리성 말입니다. 그리고 독일 관념론이 발전하면서 자아는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물론, 로크, 버클리, 흄으로 대표되는 영국의 경험주의 전통도 있습니다. 이는 19세기 실증주의와 경험주의로 이어지며, 존 스튜어트 밀과 같은 인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세기에는 버트런드 러셀과 논리 실증주의 등으로 이어집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두 가지 흐름을 따라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럽의 흐름을 따라 20세기의 장 폴 사르트르와 그 이후까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벤담과 밀로부터 시작된 경험주의적 경향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 1950년대 이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도표의 전체적인 타임라인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제는 충분히 익숙하실 겁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다양한 세계관적 전통들이 발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전통들은 유신론, 자연주의, 범신론 등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전통들은 과학사에서 발전해 온 과학적 모델들의 영향을 깊이 받았고, 그 모델들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물론 피타고라스 학파나 아리스토텔레스 학파와 같은 그리스 과학을 대표하며, 형태의 객관적 실재성, 종의 불변성 등을 강조하므로 목적론적 세계관을 지닙니다. 두 번째는 기계론적 과학으로, 목적론을 상실하고 물질의 고정된 기계적 질서와 인과관계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언급했듯이 1800년경 또는 그 직전에 역사 과학과 생물학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 두 과학은 모두 발생 과정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19세기와 20세기 대부분을 특징짓게 된 세 번째 유형의 과학 모델은 기계론적 이라기보다는 유기적인 유형에 가깝습니다.

유기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서로 얽혀 있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은 어떤 유기적인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

역사적 과정이라는 개념에는 발전 과정이 핵심적으로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독일 관념론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 그리고 19세기의 다른 사상가들, 포이어바흐, 마르크스 등에 대해서도 조금씩 다뤄볼 예정 입니다.

과정 철학을 배우게 될 겁니다 . 그리고 개요 작성은 이제 끝났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칸트 철학에서 개요 작성법을 배웠다면, 이미 익힌 셈이죠.

여러분은 철학책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화이트헤드를 시작으로, 엄선된 고전 명저들을 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 앞으로는 개요가 아닌 서평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는 헤겔의 『선집』에 대한 논제를 작성해 볼 거예요. 책의 핵심 논지를 파악하고, 그 논지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단계별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철학적 발전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평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4개월 동안 독서 철학을 더욱 심도 있게 다룰 것입니다. 하지만 이 틀을 염두에 두시면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자, 이제 우리가 하려는 것은 우선 독일 관념론의 전반적인 특징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독일 관념론은 무엇을 추구하는가? 이 도표는 바로 그 역사적 맥락을 지워버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독일 관념론자들은 기계론적 과학의 궁극적 가치에 반발하고 거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뉴턴 전통의 기계론적 과학이 현실의 본질을 알려준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연에 대한 기계론적 해석에 대해 현상론적 관점을 취할 것입니다. 그것은 실체가 아니라 현상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현실은 기계적인 것보다는 유기적인 것에 더 가깝 습니다. 정적인 질서 라기보다는 발전 과정에 가깝죠 . 곧 알게 될 겁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정적인 질서가 아닙니다. 변화가 있는 발전 과정입니다. 따라서 19세기 관념론은 변화의 형이상학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의 형이상학입니다 . 그리고 이것이 바로 20세기 과정 철학과 과정 신학이 자라나는 토대가 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이미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계론적 과학에 대한 반발이죠. 물론 , 우리는 이미 기계론적 과학에 대한 다른 반발들을 잘 헤쳐나갔습니다. 제 생각에는 세 가지 종류의 반발이 있는 것 같아요.

기계론적 법칙에는 예외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그러한 관점을 취했습니다. 정신은 다른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인과 메커니즘의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스코틀랜드 현실주의자들이 그러한 관점을 취합니다. 존 로크도 그러한 관점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로, 기계론적 철학이 현실의 본질을 설명해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완전히 거부한다는 점입니다. 라이프니츠가 바로 그 중심에 있습니다. 라이프니츠가 바로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의 단일론은 목적론적 체계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라이프니츠는 19세기 후반에 나타날 사상을 예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상주의 운동이 시작되면서 자연과 역사에 대한 목적론적 관점이 새롭게 부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목적 지향적이고, 목적 달성을 추구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잠재력이 현실화됩니다. 그러면 버클리나 칸트 같은 사람들이 현상론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기계론적 과학은 겉모습에 대해서만 말해줄 뿐 실체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잘 다뤄왔던 세 가지 유형의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이상주의자가 등장합니다.

물론, 이것은 초기 현상주의적 과학관, 특히 칸트의 영향력에 편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칸트의 영향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선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첫째 , 이는 기계론적 과학에 대한 반발입니다. 둘째, 이는 17세기의 독단적이고 합리주의적인 형이상학에 대한 반발이기도 합니다. 데카르트가 제1원리와 연역적 추론을 통해 전체 체계를 완성하려 했던 것과 같은 기초주의적 접근 방식에 대한 반발인 것입니다.

그런 과정, 그런 방법론은 우주가 엄격하게 수학적으로 질서정연하다고 생각했을 때 적절했을지도 모릅니다. 수학적 방법이 수학적 우주에 맞는 것이죠. 하지만 우주가 발달적이고 유기적인 과정이라면, 다른 종류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칸트의 초월적 방법이 핵심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그 부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초월적 방법 말입니다.

셋째, 이 독일 관념론자들은 칸트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자아의 건설적인 기여에 초점을 맞춘 초월적 방법론이라는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칸트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인 셈입니다.

다시 말해, 현실의 열쇠, 현실을 이해하는 열쇠는 자아의 역할, 즉 주관적인 자아, 인간 정신의 역할에 있습니다. 제가 칸트가 낭만주의로 이끈다고 말씀드렸죠 .

자, 바로 이것입니다. 창조적 자아의 역할이죠. 하지만 이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시청자, 관찰자, 사상가 등 누구든 자신의 자의식이라는 렌즈를 통해 전체 현실 이라는 스크린을 바라 보는 존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인간 정신의 자기의식이 제공하는 것을 통해 사물을 바라봅니다. 다시 말해, 초월적 방법을 통해 인간 경험의 모든 세부 사항 아래에 숨겨진 자기의식의 본질, 즉 자아의 본질을 밝혀낼 수 있다면, 그 빛 아래에서 마치 스크린에 투영된 전체의 현실과 같은 실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 놀이를 해본 적이 있나요? 어렸을 때 침대에서 손전등을 켜고 천장에 빛을 비춰 손가락으로 이상한 모양을 만들면 커다란 그림자가 투영되곤 했죠? 헤겔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종류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아의 이미지를 현실 전체 에 투영하는 것 . 다시 말해, 자아의 이미지로 우주를 창조하는 것. 현실 전체를 자신의 이미지대로 창조하는 것.

실재의 핵심은 자기의식이다. 그렇다면 인간 의식의 구조가 곧 실재의 구조라는 결론이 나온다. 칸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해의 범주가 실재의 범주인 것이다.

아, 당신은 현상과 명목적 구분을 깨뜨리고 있군요. 맞아요. 이해되지요? 만약 자아 형성이 현실의 형상대로 이루어진다는 일종의 사전 형성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자아의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현실의 구조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이 사람들이 하려는 일입니다. 초월적 수행법은 자기 이해 또는 자기 의식의 과정을 설명하려는 시도입니다. 즉, 자기 의식의 발달은 절대 정신, 즉 존재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근본에 대한 의식 발달의 축소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 여러분은 이 이상주의가 일원론적 이상주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존재의 근본은 하나이며, 자의식은 그 근본의 축소판에 불과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이 부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

데카르트부터 칸트에 이르기까지 근대 시대에 걸쳐 자아의 본질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아, 생각하는 존재인가? 글썄, 로크는 그렇게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좁은 지각들의 묶음만을 발견할 뿐, 그것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칸트는 지각의 종합적 통일성을 발견하는데, 이를 통해 의식의 영역이 일종의 통일을 이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해 의 도식화는 개인의 모든 경험과 사유를 통합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것이 통일된 자아를 이루는 근본적인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통일체는 의식의 구조화입니다. 그렇죠? 의식의 구조화가 통일체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독일 관념론자들의 출발점입니다. 그들은 데카르트적인 의미의 정신 실체나 영혼 실체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플라톤적인 의미의 영원한 선재성을 가진 불멸의 영혼 등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요. 그들이 하려는 건 자아를 구조화된 자기의식으로 이해하려는 거예요. 이해되지요 ? 그게 바로 자아 라는 개념이에요 .

다양한 경험 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무엇일까요 ? 자아의 통합적인 작용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자기의식을 어떻게 특징지을 수 있을까요? 제가 칠판에 적어 놓은 것처럼 , 자기의식이 현실의 핵심이라면, 그리고 질문이 '자기의식의 본질적이고 중심적이며 근본적인 특징은 무엇이며, 다른 모든 것은 단지 그 기능이나 부산물일 뿐이라면, 네 가지 다른 답이 나옵니다. 피히테에게 있어 도덕적 의식은 실천 이성 비판에서 출발합니다 . 셸링에게 있어 그것은 칸트가 목적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판단 비판에서 미적 의식은 셸링의 작품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셸링은 독일 낭만주의의 주요 철학자입니다. 프리드리히 쉐라이어마허에게 있어서는 종교적 의식이 중요합니다.

쉐라이어마허는 19세기의 위대한 신학자로, 종교적 경험을 자신의 신학에 투영했습니다. 쉽게 말해 신학에서의 낭만주의라고 할 수 있죠. 그는 낭만주의 신학자입니다.

헤겔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개념적 능력이라는 것이다. 존재라는 개념 자체를 파악하려는 끊임없는 과정, 그것이 바로 의식 발달의 특징이다.

제 자신 이라는 개념을 점점 더 온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존재 자체, 즉 전체성이라는 개념을 점점 더 온전히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한한 자아와 절대적인 자아를 구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절대적이라는 것은 존재의 유일하고 포괄적인 근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존재의 근거'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쉐라이어마허, 헤겔 등 여러 사상가들에게서 이 표현을 찾아볼 수 있죠. 자, 여기서 잠시 질문이나 의견 하나 드리겠습니다.

크리스틴? 아, 준비하면서 제 질문에 답해주셨네요. 그럴 것 같아서 계속 준비했던 거예요. 이 모든 이상주의자들의 핵심, 혹은 핵심 중 하나가 자아 내면의 통일성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자아의 통일성입니다. 그러면 곧바로 통일되고, 모든 것을 포괄하는, 하나의 절대적인 자아가 생겨납니다. 따라서 여기서 얻는 것은 일원론적 이상주의, 일원론적 형이상학이며,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에 구현되어 있죠. 네, 자아의 통일성 말입니다. 그게 범신론과 어떻게 다른가요? 왜 범신론이 아닌 일원론이라고 하시나요? 일원론이라는 용어는 간단히 말해서 현실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하나의 존재라는 뜻입니다.

범신론은 유일신을 신으로 규정하는 종교적 형태입니다. 하지만 '범신론'이라는 용어는 이들에게는 다소 지나치게 강압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헤겔은 범신론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범신론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할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차이점은 '안에'라는 뜻의 그리스어 전치사 '엔(en)'에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신이요 신이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대신, 모든 것이 신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한한 것들의 총체가 신의 총체를 완전히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은 과정이 존재할 여지가 있습니다. 스피노자의 범신론은 정적인 우주를 전제로 합니다.

그것은 기계적이고 정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동적이고 개방적인 목적론적 과정입니다. 데이비드? 아니, 아니, 다시 말씀해 보세요.

질문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맞습니다. 독일 관념론자들은 자아를 구조화된 자의의식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네, 칸트에게 있어서 자아의 통일성이란, 바로 이런 것이죠. 칸트에게 있어서 자아의 통일성은 단순히 이념과 범주를 나열하는 것으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종합적 통일성'이라고 부르는 개념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지각의 종합적 통일성'이라는 용어에 주목하세요. 곧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의 형식과 관련하여 12가지 범주를 도식화한 것을 살펴보세요.

자, 종합적 통일성과 도식화라는 두 경우 모두에서 이것이 기능적 통일성임을 주목하십시오. 자아는 행위 속에서 통일됩니다. 단순히 존재하는 것뿐 아니라, 생각하고 경험하는 모든 면에서 통일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의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곧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기능적으로 통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자기 의식을 하나로 묶는 공통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능적 통일성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기능적 단위들입니다. 곧 알게 되실 겁니다.

바로 그러한 기능들이 통합을 이룹니다. 특정 철학자에 대해서 말이죠. 존 로크와 그의 개인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떠올려 보세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아의 통일성을 부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기억입니다. 다시 말해, 과거의 경험들이 현재의 경험, 즉 과거에 대한 현재의 기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그것 또한 일종의 기능적 통일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가 근본적인 영혼의 실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추측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는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데카르트처럼 명확하게 증명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기능적 통일성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말씀 있으신가요?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은, 우선 더 유기적이고 발달적인 새로운 과학적 모델입니다. 진화론을 좋아하신다면, 왜냐하면 진화론은 발생생물학과 함께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발생생물학은 미시적 수준과 거시적 수준 모두를 아우릅니다.

미시적 수준에서는 유전학의 시작 이고, 거시적 수준에서는 진화생물학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과학적 모델인 발생론이 있습니다. 새로운 철학적 방법론이죠.

그것은 초월적 방법에서 시작되었지만, 나중에는 현상학적 방법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현상학, 그것이 바로 방법입니다. 헤겔의 대표작 제목은 무엇입니까? 정신의 현상학입니다.

등 의 근간을 이루는 방법론이죠 .

이제 '현상학'이라는 용어를 잘 살펴보세요. 이는 '현상주의'와는 다릅니다. 잠시 생각해 보면, 왜 여러분 중 일부가 이 두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해 왔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와 '학문'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의'는 입장을 뜻하는 이론이고, 현상학은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현상일 뿐이라는 견해입니다.

학문이란 어떤 것을 연구하는 학문, 방법론적인 학문입니다. 그렇다면 현상학은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현상학이 오직 현상만을 알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건 현상에 대한 연구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차이점을 이해하시겠어요? 네, 왜냐하면 자아의 구조를 파악하려고 한다면, 의식과 자의식 발달 과정에서 일어나는 기능적 구조화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그 과정을 설명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의식 발달의 현상을 설명 해야 하는 겁니다 . 그래서 방법론은 현상학적입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이 용어는 꽤 흔하게 사용 됩니다 . 철학적 소양이 부족한 일부 사람들이 이 용어를 현상론과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둘은 엄연히 다릅니다. 이 용어의 올바른 용법은 '종교 현상학'과 같은 표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용어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종교적 경험의 현상을 기술하는 종교적 경험의 현상학이고, 다른 하나는 신념과 관행을 기술하는 종교 현상학입니다.

사회적 차원, 종교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현상학. 그것은 서술적인 방법론이다.

이것은 논증적 증명으로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데카르트 전통의 낡은 논증적 증명 방식은 이제 과거의 것입니다. 그것은 독단적 형이상학의 일부였습니다.

당신이 제시하는 방법은 서술적인 방법입니다. 효과적인 서술의 결론은 "그러므로, 이리이러하다, 증명 완료"가 아닙니다. 효과적인 서술의 결론은 "아, 그렇군요, 그렇네요."입니다.

이해 되시죠? 여러분이 설명을 통해 하는 일은 누군가에게 "이리 와서 이걸 봐. 내가 보는 걸 너도 봐."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해 되시죠? 그리고 그런 함의적인 사회적 과정을 통해 설명의 타당성이 더욱 강화되는 겁니다.

아시 겠죠? 무엇이 제대로 묘사되고 있는지에 대한 대인 간 함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증명적인 접근 방식이 아니라 서술적인 접근 방식인 거죠. 그러니 헤겔을 읽을 때, '그가 뭘 증명했지? 주인과 하인에 대한 이 부분은 뭐지? 뭔가 증명한 게 있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는 아무것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인이 자신을 주인으로, 하인이 자신을 하인으로 인식하게 되는 대인 관계의 역학을 설명하려는 것뿐입니다. 이해 되시나요? 자아 인식과 자의식이 발달하는 과정이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체의 그림자에 불과하거나, 전체가 그것의 그림자인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소우주와 대우주 말이에요. 여기서 체계 인상 깊었던 또 다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이 부분을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지난 가을에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철학의 시작 이전, 호메로스나 헤시오도스 같은 그리스 시인들 시대부터 질서 있는 통일성이라는 개념이 존재했다는 점을 지적하려고 했었죠. 즉, 개인의 도덕적 삶의 질서는 도시 국가의 질서 있는 정의의 축소판이고, 도시 국가의 정의는 우주의 질서 있는 통일성의 축소판이라는 거죠.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질서 잡힌 자아, 옳고 정의로운 개인은 질서 있는 우주의 축소판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 시점에서 변화가 얼마나 급진적인지 주목해 보세요. 어찌 보면, 이는 다시 그 주제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해 되시죠? 자아의 질서 있는 통일성은 전체 현실 의 질서 있는 통일성의 축소판입니다 .

아시 겠죠? 그리스 철학자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물리적 우주의 질서 있는 통일성이라는 관점에서 발전된 것이었습니다. 아! 지금은 관념의 세계, 문화, 예술, 종교의 세계라는 질서 있는 우주라는 관점에서 발전되었죠. 하지만 자아가 전체의 축소판이라는 생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헤겔을 읽거나 헤겔에 대해 읽다가 로고스라는 개념을 접하게 되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이해 되시죠? 헤겔은 자신의 종교 저술에서 기계론 시대, 즉 목적론이 없었던 시대에 가려져 있던 로고스 개념을 다시 도입했으니까요.

좋아요. 제가 뭐라고 했죠? 새로운 과학적 모델, 새로운 철학적 방법, 현상학적 기술이라고 했죠. 알겠습니다.

새로운 논리. 새로운 논리.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은 삼단논법 의 논리 였기 때문이다 .

삼단논법. 우리가 얻게 될 것은 과정의 논리 입니다 . 그리고 그 과정의 논리는 변증법입니다.

삼단논법은 불변하는 보편자의 논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한 정언 삼단논법의 기본 규칙을 알고 계시죠 ? 모든 A는 B이다. 모든 B는 C이다. 그러므로 모든 A는 C이다. 보시다시피, 삼단논법의 기본 규칙은 중간항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항은 적어도 한 번은 보편적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B가 적어도 한 번은 보편적이어야 하고, 모든 B가 보편적이어야만 이 특정한 B가 이것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결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연결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 연결어는 보편적인 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 물론, 보편적인 계층의 사람들을 나타내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계층이어야 할 것입니다 . 다시 말해, 어떤 종류의 불변하는 보편적인 요소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불변하는 보편적인 개념이라도 말이죠.

그래서 이 논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보편자에 중점을 두면서 고안하고, 체계화하고, 발전시킨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는 불변하는 보편적 개념, 즉 계급, 종과 같은 개념들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과학과 역사에서 발전이라는 개념이 있다면, 발전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당연히 보편자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겁니다. 헤겔은 보편자 이론 전체를 재구성해야 했습니다. 그는 보편자 이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재구성한 것이죠. 그리고 그의 접근 방식은 아리스토텔레스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

하지만 그것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그는 영속성의 논리보다는 과정의 논리를 다뤄야 합니다 .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헤라클리토스와 파르메니데스의 대답은 보편적 변화와 보편적 영속성의 대답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변화가 영원함보다 더 궁극적이라는 개념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변화는 영원함보다 더 궁극적입니다. 헤겔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논리에 대해 몇 가지 언급을 하겠습니다.

헤겔의 논리학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가 모순을 부정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명백히, 그는 모순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그것은 사소한 일이라고 여깁니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듯이, 모순에 동시에, 그리고 같은 측면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즉, 과정의 논리, 변증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변증법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예', '아니오'라고 말한 다음, 그 둘을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정, 반, 종합. 예, 아니오, 자, 여기 답이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고 과정, 즉 출발점은 마치 정신적인 방황과 같아서, 아이디어로 가득 찬 미로 속에서 길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좀 더 나아가야 하고, 네, 우리에게 이 것과 저 것이 필요합니다.

생각이 이리저리 헤매다 보면 점점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하게 됩니다. 개념이 서서히 펼쳐지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를 생각해 보면, 역사는 마치 진자처럼 솟구치는 경향이 있다는 견해 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구소련 지역에서 보수적인 반발을 목격하고 있는데, 그 후에는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즉, 변증법적 과정이고 새로운 논리가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인식론도 필요합니다. 새로운 인식론 말입니다. 17세기와 18세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은 표상론적 지식 이론이었습니다.

표상적. 관념은 주관적이고, 무언가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이 독일 관념론자들에게 있어 관념은 더 이상 정적인 표상, 마음속의 정적인 표상이 아닙니다. 관념은 우리가 속한 세계, 더 큰 세계와의 역동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직접적인 인식을 강조하는 인식론을 갖게 됩니다. 그 안에서 아이디어와 개념이 점진적으로 명확해집니다. 직접적인 인식, 점진적인 명확화.

헤겔을 다루면서 그 점을 더 명확히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형이상학,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 온 것이죠. 새로운 형이상학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유물론이나 이원론보다는 관념론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이상주의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 정신, 자아의 본질을 지닌다고 봅니다. 원하신다면 발전적인 형태의 일원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를 진화론적 이상주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모든 진화론적 사고가 자연주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진화론적 이상주의자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 모든 것의 근간을 이루는 영적인 삶과 활력이 완전히 실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잠재되어 있다가 이제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화론적 이상주의. 때로는 내재론이라고도 불립니다. 어떤 신적 존재, 즉 존재의 절대적 근원이 전체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

해야 하는 초월적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따라서 특별 계시라는 것은 없습니다.

신성이 내재되어 있다면, 신성한 자의식이 당신의 자의식 속에서 솟아오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계시나 계시 행위 같은 것은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역사적인 구원 행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며, 임박한 것입니다. 단 한 번뿐인 환생은 없습니다.

초월적인 신이 스스로 육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신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현현은 모든 것에 내재된 신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헤겔의 종교 철학을 다룰 때 이 점을 유념하십시오. 신성 내재론 말입니다.

형이상학은 때때로 점진주의로 묘사됩니다. 즉,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어느 정도 정신, 영혼, 의식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존재의 위계질서에 따른 단계라는 기존 개념은 이제 발달 과정으로 해석됩니다.

진화 과정은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정신과 영혼의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화론적 낙관주의의 일부입니다.

헤겔에게 있어 정신의 가장 완전한 발현은 독일 문화에서 나타납니다. 다른 어디에서 그런 모습을 기대하겠습니까? 네, 바로 그때가 민족주의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민족주의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민족의 정신적 정체성을 온전히 구현하고, 스스로를 발견하고,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족주의는 낭만주의의 산물입니다. 독일 이상주의의 산물이죠. 아, 그리고 보니 저도 낭만주의라고 말하려던 참이었어요.

음, 당신은 이미 그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위즈워스의 수선화 찬가에서 당신의 마음이 수선화와 함께 춤을 춘다는 건 단순한 은유가 아니죠. 수선화의 춤은 당신 마음속에서 더욱 충만하게 작동하는 창조적 정신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심장은 그 자극에 반응하여 하나의 거대한 춤 합창에 동참하게 됩니다. 낭만주의.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독일 이상주의와 연결짓는 지점입니다.

자, 이제 제가 다른 인물들에 대해 몇 가지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설명하려는 그림이 이해 되시나요? 이 그림과 앞으로 보여드릴 다른 예시들을 이해하신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헤겔의 단편들을 읽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알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먼저 슈툼프를 읽으세요.

그는 전반적인 그림을 제시하겠지만, 마치 논리적 체계인 것처럼, 발전 과정이라기보다는 거의 생명력이 없는 그림을 보여주는 셈입니다. 제

생각에 이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이 짧은 책이지만, 저는 우리 대학 졸업생이자 브롱크스에 있는 포드햄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메릴 웨스트폴(Meryl Westfall, WESTPHAL)의 헤겔 관련 저서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탁월한 헤겔 학자입니다.

그는 미국 헤겔 학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그의 책은 이러한 점을 파악하는 데 매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아를 통합하는 것, 즉 자아의 지배적이고 모든 것을 포괄하는 기능은 무엇일까요? 1814년에 세상을 떠난 피히테는 공교롭게도 백마를 타고 유럽을 행진하는 나폴레옹의 모습에 매료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은 낭만주의적 상징으로 많은 것을 담고 있죠. 피히테는 우리의 모든 경험을 뒷받침하는 근본이 무엇인지, 칸트의 용어를 빌리자면 인간적인 경험을 가능하게 하고 우리의 의식을 지금과 같은 형태로 만드는 전제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이것이 칸트의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는 칸트처럼 교조적인 형이상학을 거부하고, 칸트처럼 초월적인 방법을 택한다. 그리고 자아 경험을 설명하면서 그가 발견한 것은 자아의 본성이 도덕적 존재의 본성으로 두드러지게 드러나며, 의지가 가장 지배적이고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능력이라는 점이다.

흥미롭게도, 그가 제시하는 현상학적 설명은 오히려 인식론적 측면에 대한 설명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데카르트가 제기했던 오래된 질문, 즉 "물질적인 물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던집니다. 이는 아주 오래된 질문입니다. 버클리는 분명 이 질문을 반겼을 것입니다.

물질적인 몸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물론 그의 첫 반응은 버클리나 후 같은 사람들의 회의론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물리적인 몸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 도덕적 갈등, 의무와 욕망 사이의 내면적 갈등, 의무에 따라 행동하는 것과 주변 세상에서 제 성향을 따르는 것 사이의 갈등 속에서, 제 도덕적 삶은, 칸트에게서 나왔던 그 용어가 다시 등장하는데, 자아의 도덕적 삶에 반대되는 비자아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도덕적 의지의 반대는 도덕적 삶에서 발견됩니다. 도덕적 의지의 반대는, 말하자면 의지에 의해 가정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비자아 세계가 존재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비자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자아와 일종의 변증법적 대립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도덕적 삶에서 알고 있듯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만약 자기 의식은 현실의 핵심이며, 이 렌즈를 통해 저는 현실의 모습을 전체 화면에 투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의 본질에 대해 무엇을 말할까요? 분명히, 현실 전체에서 자아의 반대 개념은 없습니다. 자아가 '~' 이면서 '~이 아닌' 두 가지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투영되는 것은 그것이 자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자아, 절대적인 의지. 다시 말해,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의지적 특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인간에게는 의식적인 의지, 도덕적인 의지가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본능적인 충동이 있죠.

식물 생명에서는 끊임없이 성장 하고 생존하려는 욕구가 나타납니다. 무생물조차도 외부의 힘에 저항합니다. 이 모든 경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자신과 다른 것에 대한 의지의 발현, 또는 의지의 전단계입니다.

풍화에 저항하는 바위. 흙을 뚫고 솟아오르는 식물.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욕구와 투쟁심을 가진 동물 .

그리고 인간은 단순히 욕구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에 따라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이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그것을 묘사하는 방식은 바로 이런 식입니다.

궁극적인 현실이란 유한한 자아와 유한한 비자아로 나타난 절대적 자아입니다. 우리가 현상계에서 관찰하는 것은 바로 그 대립, 즉 자아와 비자아의 대립입니다.

따라서 현상학적 설명은 이것을 묘사합니다. 우리는 의지의 노력의 실체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 비자아의 실체는 알지 못합니다.

일단 그렇게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이것을 화면에 투영하면, 절대적 자아가 현실의 본질입니다. 셸링으로 한번 시도해 보세요.

셸링으로 시도해 보세요. 앞서 말했듯이, 그의 출발점은 실천 이성 에 대한 비판보다는 판단력에 대한 비판에 더 가깝습니다 . 핵심은 자연과의 일체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적 경험이 속해 있는 지속적인 목적론에 대한 느낌. 뭐, 그렇습니다. 셸링은 자연 철학을 진화적 이상주의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질 세계는 살아있는 의식을 가진 정신으로 점진적으로 진화하는 초기 단계에 있다. 그리고 자연은 살아있는 힘이며, 충동적이다.

창의적이고, 참신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그는 마음의 철학으로 눈을 돌릴 때에도 인간 문화에서 같은 종류의 것을 발견한다.

이론적 사고에서 창의성은 낮은 수준이며, 새로움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감각 지각. 이론적 지식.

이러한 창조적 충동은 실질적인 영역, 즉 피히테가 말했듯이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영역에서 더욱 활발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가장 완전한 발현은 미학적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제1차원의 관조적 차원인 지각이 제2차원의 능동적 차원인 도덕적 차원과 결합되는 곳. 행위와 관조가 창조적인 예술 속에서 결합한다. 창조적 활력

상상력이 풍부하고, 새로운 경험의 세계를 창조한다. 그는 이러한 현상을 현상학적으로 추적하여 현실 자체가 전반적으로 광대하고 창조적이며, 창조적 의지나 창조적 추진력의 결과라고 결론짓는다.

감정에 대한 강조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절대자가 드러나는 방식에 대한 강조.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매우 유사한 방법론적 과정을 따르게 됩니다. 거의 똑같다고 할 수 있죠.

술라이어마허요? 셸링은 독일 예나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베를린에서 낭만주의 서클의 일원이었습니다. 베를린에서 그는 경건주의 배경을 가진 목사이자 병원 사목 담당자였던 술라이어마허와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종교적 의식을 핵심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칸트가 종교를 윤리로 축소하는 것에 반대한다. 목사라면 누구나 알듯이, 종교적 경험은 단순히 윤리적 의지, 즉 도덕적 의지 그 이상이기 때문이다.

종교적 경험은 신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가 정의한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즉, 신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감입니다.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즉 절대적인 의존 관계가 성립하려면, 신은 우리와 함께 존재하는 또 다른 개별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신은 초월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신은 존재 그 자체이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스피노자의 범신론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길 원하지 않는다.

스피노자는 18세기와 마찬가지로 개인을 서로 분리되고 고립된 존재, 즉 원자론적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반면 슬라이어마허는 보다 관계적인 관점을 취합니다.

저는 다른 것들과 외부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저를 통해 연속성이 흐르는 통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기적인 관계가 존재합니다. 자아, 즉 제가 무엇 인지, 이 종교적 경험에서 통합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관계들의 전체 네트워크입니다.

저는 부모님과 유전적 관계, 친구, 동료, 환경과의 사회적 관계,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과의 정서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

그리고 이것의 핵심을 관통하는 것은 절대적인 의존감입니다. 이 벡터들이 향하는 곳마다, 그것들은 어떤 형태로든 의존 을 표현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의 통일된 핵심으로 모으는 것은 존재 자체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한한 의존들은 전체의 유한한 측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신은 존재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근본입니다.

그리고 그가 시도했던 것은 물론 이러한 용어로 기독교 신학적 개념을 정의하는 신학을 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신학적 언어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기의식의 기능적 통일성에 대한 현상학적 설명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자아에서 발견하는 것은 단순히 전체의 축소판일 뿐이며, 그것이 현실의 본질로 투영된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헤겔을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